

# 죄인에서 최고의 증인이 된 마태

-복음으로 여는 마태복음-

여호수아 2:1, 마태복음 9:9-13

정운돈 목사님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승리하며 가장 행복한 존재로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인간이 어리석어서 불신앙하고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237 나라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성경적 다락방전도운동의 주역이며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전도와 선교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기념주일면서 개혁총회주일이다. 개혁주의, 장로주의신학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성경중심주의인 것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Reformation 이라고 한다. 원래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또 다시 율법주의로, 가톨릭과 같은 구교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이다. 복음이 들어와서 어려운 일제시대 때는 목숨을 걸고 오직 예수를 믿었다. 그런데 1970년대부터 경제가 부흥하고 발전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오직 예수가 아니라 무언가를 더해서 믿었다. 과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 안에서 ‘이 나라의 가난을 해결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욕심쟁이가 된 것이다. 교회도 돈만 알고 부흥만 쫓는 시간표가 된 것이다. 우리 교단을 다시 세우셔서 1990년대 초부터 너무나도 당연한 오직 예수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그 시간표와 역사를 모르게 되면 ‘당연한 오직 예수인데, 왜?’ 하게 되는 것이다. 류광수 목사님의 말씀이 사실은 전혀 충격 받을 일이 아니다. 잘못 흘러간 것을 반성하거나 충격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시작한 것이 우리 교단인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개혁교단과 우리 전도총회가 하나가 되어 한기총에 들어가서 제일 큰 교단이 되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합법적인 기독교교단은 한기총 밖에 없다. 한기총에서 제일 큰 교단이 우리 교단이다. 하나님의 승리와 계획인 것이다. 총회장 했던 분들은 오대양 유대주로 가셔서 선교하고 후대들은 종교개혁적인 복음, 오직 복음을 회복하는 시간표가 우리에게 온 것이다.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는 줄 믿기를 바란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진정한 종교개혁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을 잘 정리한 인물이 마태이다. 마태는 죄인, 세리였는데 개혁한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잘못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개혁하고 그 내용을 마태가 정리한 것이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보면 ‘라합이라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기생’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자녀’이다. 이 ‘자녀’라는 단어의 뜻은 ‘간음하다. 매춘하다. 창녀이다.’라는 의미이다. 라합은 죄인이었지만 온가족을 구원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 여호수아서 2장 21절에 보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나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붉은 줄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마태 또한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여 로마제국에게 세금을 바친 세리, 죄인이었다. 로마 속국이 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 중에 세리가 된 사람들을 살인자, 강도, 죄인으로 취급했다. 그 가족들 또한 똑같이 취급했다. 잘못했을 때 증인으로도 세우지 않을 정도였다. 마태는 그런 인물이었었던 것이다.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이 부르시자마자 따라갔으며 평생동안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 마태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고 사람들을 감옥에 넣는데 옳은 일인가.’ 질문한 것이다. 질문만 바르게 해도 된다. 마태는 단순히 주님을 따라다니는 정도가 아니었고 그리스도의 족보, 탄생, 공생애와 죽음과 부활까지 가장 자세하게 정리해서 자료를 남긴 중요한 역할까지 담당하였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다. 유대인을 진정으로 전도하려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이 이 말씀을 보면 다 박살나는 것이다. 마태는 그리스도로 결론내고 마태복음을 편집, 설계, 디자인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

## 1. 첫 번째로, 마태가 정리한 마태복음의 중요한 내용들과 그 의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 마태는 마태복음을 쓰면서 특이하게도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마태복음을 시작한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오신 참된 왕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요셉의 조상도 다윗이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조상도 다윗이라는 것이다. 마태 복음에 나온 족보는 요셉의 족보이고,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에 나오는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이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다보면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한 조상으로 겹치고 있다. 아브라함, 다윗, 스룹바벨, 이모스, 나훬과 같은 인물이다. 이런 족보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유대인들이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인 증거였던 것이다.

(2)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장 23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나사렛에 살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내용이다. 마태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지만 헤롯왕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죽이려 하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어린 시절 나사렛에 자리한 것도 구약의 예언의 성취된 증거였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도 ‘나사렛사람이라 칭하리라’ 말한다. 호적을 올리러 가다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증거가 대보라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여러분이 바른 말을 했을 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언약을 붙잡고 회개하고 받아들이야 한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성경에서 나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줄만 그어도 된다. 마태복음에 보면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죄인인데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겠는가. 이 복음이 마음속에 들어간 사람은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회개가 된다. 여러분의 기준, 수준, 표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3) 3장과 4 장은 세례 요한의 활동과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것도 많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인간들처럼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그것을 말씀으로 이기셨다. 그래서 강단말씀이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도 사탄을 말씀으로 이기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기준, 수준, 표준이 말씀이 될 때 사탄나라와 세상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통해서 40일 집중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계신다. 중요한 때에 여러분은 집중할 필요가 있다. 깊은 호흡 세 번만 하면 살인을 면한다. 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힘을 주세요.’ 집중으로 성경을 읽고 40일 집중하면 대역사 일어난다. ‘하나님이 분명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님이 응답을 주신다. 우리는 237 나라를 살려야 한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한다.

(4) 4장 18절에서 22절에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 어부 출신이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즉시로 따랐다. 이렇게 제자는 현장에 예비되어 있다. 즉시 따라오는 자가 제자이다. 그리고 끝까지 따라오는 자가 제자이다.

(5) 또한 5장부터 7장 29절까지는 산상설교를 하시는 내용이다. 산상설교를 산상보훈이라고도 하고 산상수훈이라고도 한다. 이 내용들을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는 유대지도자들의 잘못된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박살내기 위한 것이다. 그들은 산상보훈의 말씀대로 절대로 살 수 없는 영적상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양심에 찢리는 것이다. 걸치레, 형식적인 종교만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없고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 산상설교의 말씀은 완전복음을 향해 도전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천리스트라고 볼 수 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하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산상보훈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끝임없이 도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서밋으로 가는 여정이다. 우리는 구원만 겨우 받은 초급, 중급신앙에서 고급, 초특급의 신앙으로 성장해야 한다. 결국 산상보훈의 절대목표는 마태복음 5장 48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 충분,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복음을 뛰어 넘어 오직복음, 완전복음, 영원한 복음을 향해 도전해야 할 것이다.

(6) 마태복음 8장부터 23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기간 동안에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다양한 사역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다양한 사역의 내용이다.

①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셨다.

② 두 번째로 유대인들 특히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는 사역을 하셨다.

③ 세 번째로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을 가르쳐주시고 교훈을 주는 사역을 하셨다.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당연한 것들을 가르치셨다.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는 전도의 현장에 가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서도 전도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셨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에서는 천국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고 겸손한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해 주셨다. 이 내용은 세상적인 겸손과 영적인 겸손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면 왼쪽, 오른쪽에 서겠다고 말한다.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다. 우리는 제자가 될수록 더 겸손해져야 한다. 더욱 섬기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 가정 안에서, 친구 앞에서나, 어디를 가도 섬기는 자세가 되면 현장의 흑암이 켜진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 지켜야 할 질서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셨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나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4절에서는 용서를 비는 자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셨다.

④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에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다양하게 해주셨다. 이 천국에 대한 비유는 모두 전도에 대한 비유이다. 이 비유 중 좋은 땅에 대한 비유가 있다. 마태복음 13장 8절을 보겠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우리들도 강단말씀이 뿌리내려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만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란다. 이러한 만남을 가질 때 전도는 쉽고 3천 제자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7)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감람산에서 말세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 말세의 예언에 대한 가장 중요한 키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와 더불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바른 태도를 말씀해주셨다. 마태복음 24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을 보겠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리고 한 사람은 버려둬를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나 너희도 이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오늘 여러분의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언제 오실지 오늘 밤에나 내일 오실지 몰라도 준비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진실하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며 기도만 하면 된다.

(8)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인 26장부터 28장 15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다.

(9) 가장 마지막 부분인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는 지상명령을 주시는 부활메시지로 끝나고 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삶을 승화시키려는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우리들에게 237 나라, 5천 종족에 대한 지상명령을 주신 것이다.

## 2. 두 번째로 마태가 발견한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마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보고, 듣고, 정리한 그리스도와 복음을 마태복음에 기록했다. 우리는 그 핵심적인 내용을 알아야 하겠다. 오늘은 두 부분의 내용만 말씀드리겠다.

(1)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은 가장 핵심적인 구원의 복음이다.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성취이고,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의 성취이다. 여기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아기 예수가 태어나면 그 이름을 '예수, 임마누엘'이라고 지으라고 하였다.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이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성령님께서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겠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것이 구원이며, 복음이다.

(2)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각인시켜주시는 장면이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는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하느냐' 이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16장 14절에서 '이르되 더러는 세세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라고 대답을 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다.

① 그들은 예수님을 '세세 요한'같이 종교적인 개혁주의자나 정치인들의 잘못을 꾸짖는 민족의 리더자로 생각하였다.

② '더러는 엘리야'라고 생각하였다. 엘리야는 신비주의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다.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도 내렸고, 3년 반 동안 비가 그치기도 하고 다시 내리기도 하였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였다.

③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생각하였다. 예레미야를 유대인들은 눈물이 많은 박애주의자나 민족주의자로 생각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겉모습만 그렇게 보고 착각했던 것이다.

④ 또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한다고 제자들은 말했다. 지금도 이슬람교나 여러 이단들에서는 예수님을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최근 한국교회에서도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때 예수님께서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하느냐'라고 직접 질문하였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이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서는 16장 17절에서 19절에 말씀을 하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해 주셨다. 전도와 복음인 천국 열쇠를 주시고 성도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 죄인이었던 마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가장 핵심적인 예수님의 사역들과 복음을 정리하였다. 여러분들도 마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들과 복음을 잘 정리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 받기를 축원 드리겠다.

결론으로 마태복음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하고자 한다.

1. Covenant, 언약이다. 마태복음을 통하여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최고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다. 예수님을 만난 마태는 모든 것을 던지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평생 살아갔던 것이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비전은 마태가 보고 듣고 체험한 그리스도를 237 나라에서 마태와 라합같이 '예비 된 제자' 즉, 좋은 땅들을 찾아 증거하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만일 24시간 라합과 마태와 같은 제자를 찾기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창세기 1장 27절(형상)과, 2장 7절(생기)을 회복하기 위하여 조금만 집중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미리 보고, 갖고, 누리고, 정복하고, 성취하게 될 것이다.

5. Practice, 연습, 실천이다. 이번 주는 마태처럼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와 복음을 정리해보시고 절대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 보기를 바란다.

예수생명, 예수능력 안에서 참사랑 RUTC와 3천 제자, 237을 위한 일천만 제자를 세우는 개인과 가문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험악한 어려움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예배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으시고 정말 우리들과 가문과 후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중한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상을 치유하며, 우리 후대들을 모든 분야에서 서명으로 만드는 사역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